2.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 본 문항은 공유지의 비극과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라는 두 종류의 문제적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국어〉, 〈경제〉, 〈윤리와 사상〉 등의 교과목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임에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 자원을 과다 사용하여 고갈되어서, 결과적으로 개인들도 공유 자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지칭한다.

-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은 모두, 개인의 사적인 경제 활동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공공재의 적정량 공급, 공유지의 적절한 사용)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다.

- 각 제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 내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속성으로 설명한다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며,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 것처럼 우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비배제적이며 비경합적인 공공재이며, 서로 눈치만 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임승차의 예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공유지 비극의 사례를 보여준다. 남극의 고래 또한 아무나 포획할 수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이미 포획된 고래는 다른 포경선에 의해 포획될 수 없기 때문에 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남극의 고래는 공유 자원 재화의 예이며, 남극의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공유지 비극의 사례이다.

제시문 **[라]**는 공공재 공급 부족의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서 목초지 관리 활동은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치안, 소방 활동과 같은 공공 서비스, 즉 공공재이다. 따라서 목초지 관리 서비스는 제공되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비배제성을 가지며, 한 명이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비경합성을 가진다.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이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무임승차 문제가 심해져서 전반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공유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공중 화장실의 휴지, 대중목욕탕에서의 물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공유 자원 재화이다.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는 항상 빨리 없어지고,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다.

제시문 **[바]**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부족을 보여준다. 가로등은 설치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빛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 비배제적이며, 한 사람이 불빛의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혜택이 제한되지 않아 비경합적이다. 제시문 **[바]**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발췌된 것으로 개개인이 사적인 경제 활동만을 하더라도 시장의 작동에 의해 공공의 이익(공공선)이 달성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주장은 재화가 공유 자원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거나, 공공재처럼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한계점을 가진다.

제시문 [아]는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한 사례에 해당한다.

제시문 [자]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때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그 대안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자구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채점기준

- **[조건 1], [조건 2], [조건 3]**을 모두 반영하여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조건 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 현상을 파악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지니는 공공재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 둘째, 비배제성, 경합성을 지니는 공유지가 지니는 비극적 현상이 그것이다.

- **[조건 2]**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바]**를 각각 두 문제 현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분류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틀리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나]**에서의 우물은 공공재에 해당하며, 공공재의 공급 부족문제를 보여준다. **[다]**에서의 고래어장은 공유자원이며, 공유자원의 남용 문제를 보여 준다. **[라]**에서는 목초지 관리활동을 공공재라고 명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인데, 이를 반드시 '소방, 치안' 등과 비슷한 성격의 공공재로 명시해야만 한다. **[마]**에서 공중화장실의 휴지는 공유자원이며, 공유자원의 남용 문제를 보여준다. **[바]**에서 가로등은 공공재 문제이며,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보여준다.

- **[조건 3]**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적 현상이 어떤 공통점을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했음을 보여주고, 그 한계점과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4. 답안사례

[가]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공공재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와 같은 행동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공공재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지의 사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경합성으로 인해 한 사람이 공유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공유지 사용이 제한된다. 그에 따라 공유 자원을 남용하게 되는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나], [라], [바]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보여 준다. 우물, 가로등, 목초지 관리 활동 혹은 서비스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한 명이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재의 공급 부족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다], [마]**의 남극의 고래, 공공화장실의 화장지는 비배제적이면서도 경합적인 공유 자원이며, 해당 지문들은 공유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 비극의 문제를 보여 준다.

공유지 비극의 문제와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동할 때 공익은 감소할 수 있고 이 결과로 개개인의 후생은 더욱 나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익 추구가 항상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사]**의 주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익 추구의 한계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를 통해서는 구성원의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부족 문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 공유 자원의 고갈을 불러오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 본 문항은 최근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추론하고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계층별 소득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고 이러한 차이의 발생 원인을 추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반세계화 흐름의 원인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 최근 선진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의 타당성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공리주의 및 롤스의 정의론이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제인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 정책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다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도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 각 제시문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세계화의 결과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생한 소득 변화 정도를 전 세계 소득 분위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고, 개도국 및 선진국 중산층이 전 세계 소득 분위별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함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수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와 [라]에서는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 및 무역의 결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상대 소득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에서 노동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을 추론하게 했으며 정부의 소득 재분배로 인한 사회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마]에서는 선진국 노동 계층 중에서도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간 소득 변화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무역에 따른 소득 감소가 특히 노동 계층 전반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숙련 노동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바]에서는 최근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반세계화 흐름 및 보호무역 정책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다른 관점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사]에서는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벤담과 롤스의 관점을 비교하도록 하여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경제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채점기준

본 문항에 대한 답안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첫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의 발생 배경을 추론하는 부분이다.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선진국 중하위 계층의 소득 정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같은 현상의 발생 원인을 **[라]**에 의거하여 적절히 추론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으로 인한 소득 효과를 단순히 자본 및 노동이라는 이분법 하에 설명하는 것을 넘어, **[마]**의 내용 중, 노동 내에서도 소득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본 소유자 및 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비숙련 노동자 소득은 감소하였음을 적절히 지적하여야 한다. 무역의 소득 효과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 및 노동,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득 정체를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의 배경으로 적절히 연결하여야 한다.

■ 둘째, 보호무역 정책을 사회 정의에 관한 두 관점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부문이다. 이를 위해, 제시문 **[라]**에서 무역 규제로 얻을 수 있는 노동자 이익이 그로 인해 초래된 사회 전체적 손실보다 작다는 점에 주목하고, 최대 행복의 추구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롤스의 관점(제1원칙)에 입각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적절히 지적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자본 소유자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적절히 취한다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제시문 **[라]**)에 착안하여 롤스의 관점(제2원칙)에 입각할 경우에도 보호무역 정책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여야 한다.

4. 답안사례

[바]에서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가]~[마]**에 입각하여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는 세계화로 국가 간 거래, 즉 국제무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나]**는 이 같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선진국 중산층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 **[다]**와 **[라]**는 무역의 결과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한 선진국에서 자본 소유자의 소득이 증대된 반면, 노동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한편 **[마]**는 무역으로 초래된 선진국 노동 소득의 변화가 노동 계층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 자본 소유자 및 숙련 노동자 소득은 증가한 반면,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 및 후자의 불만 증대는 이들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초래한 주요 배경을 이루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사]에서 제시된 관점 중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보호무역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정책의 실시로 선진국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역 규제에 따른 사회 전체적 손실에 비해 작고, 따라서 '최대 행복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반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무역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정책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소유자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적절히 취해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된다.

2.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최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학제적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입문자로서 어떠한 탐구 자세를 지녀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1945년 조지 오웰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 시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에서는 과학 지식을 구성할 때에도 인문학적 사유, 인문학적 성찰, 인문학적 연구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요약하거나 추론해 내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는 과학적 사고에 대한 맹신이 비과학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도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의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작가의 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눈물의 함축된 의미와 여운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시를 제시한 후 그것이 과학적인 환원주의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과학자의 경험이 제한적이기에 과학의 언어도 어떤 대상을 제한하거나 한정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과학적 기술에도 비과학적으로 취급되는 철학적인 사고가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예견된 책임'에 대한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이 철학적 사고를 반영할 때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제시문 [마]**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인문학적인 사유와 공통되는 '직관, 은유적 사고'를 근거로 하는 부분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채점기준

■ **[가]**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고, **[나]**의 입장을 **[가]**와 관련지어 기술하되, 인문학적 사유와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다], [라], [마]**에서는 각기 인문학적 사유의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추론해 내어 **[나]**를 강조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다]-[라]-[마]**는 **[나]**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와의 논지를 관련 짓는 '논리'가 타당한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가 제기하는 문제를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과학자가 모든 분야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과학 우월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그 다음, **[나]**의 논지가 기술되면서, **[다]-[라]-[마]**가 **[나]**를 뒷받침하도록 한다.

■ **[나]**의 입장은 **[가]**와 관련지어 기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의 슬픔은 과학자가 과학적 환원주의로 해결할 수 없음을 언급되어야 한다. 동시에, **[나]**의 입장은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시에 대한 해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 사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직관적 영역 등을 도출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인문학적 사유와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 **[다]**는 과학자의 경험 역시 제한적이기에 '모든 분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라]**는 인문학적 사유의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추론해 내어야 한다. 즉, 과학자의 '예견된 책임'이란 새로운 윤리관으로서,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따라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마]**에서는 인문학적 사유와 공통되는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과학의 발전 역시 인문학적 사유와 공통되는 '직관, 은유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음을 도출해 낸다.

■ 전반적으로 과학 만능주의를 비판만 하거나, '인문학적 사유'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없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과학이 비과학적인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시문 내용의 재진술'을 하면 추론적 사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다]**의 내용을 과학자가 과학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의 핵심은 '경험의 한계', '분야의 한정성'이다. **[다], [마]**를 논하면서 과학자를 온전히 부정하기만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즉, **[다]**에서 과학자가 과학에서도 과학 판단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마]**에서 과학자는 늘 오류 투성이라고 언급하면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라]**를 논하면서 '예견된 책임'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을 성찰하도록 한다고 언급한다면, 인문학적 가치를 도출해 낸 것이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문학적 사유는 과학 탐구 방법의 객관성을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언급을 하거나, **[마]**를 논하면서 과학자 역시 원래 인문학적 사유 요인이 있음을 언급한다면, 균형적 사고를 한 것이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4. 답안사례

[가]는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자의 의견을 중시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에서는 눈물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환원해 봤자 인간의 슬픔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분야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로써 인문학적 사유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이하 **[다], [라], [마]**의 논지에서도 **[나]**의 논지가 가치 있음이 입증된다.

[다]에서는 과학자도 경험의 한계로 인하여 대상을 불완전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대상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갖지 못해서 현상의 전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과학자의 설명이 늘 객관적이지는 않기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문학적 사유를 한다면 오히려 과학의 객관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타당하다.

[라]에서는 과학 기술의 책임 윤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현 세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즉, 현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신중히 예측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 보여주는 '객관성 확신을 유보'하는 태도와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이는 곧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에서는 과학 분야에서도 은유적 사고로 인해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톰슨의 은유적 사고는 현대적인 원자 모형을 발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통제된 실험이나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에서 역시 이러한 은유적 사고로써 대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즉, 시적 자아가 느끼는 '슬픔'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방법이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상된 것이다.

2.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 본 문항에서는 다문화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갈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문학〉, 〈사회 · 문화〉,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다. 교과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감과 관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문항에서는 다문화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는 다문화 갈등을 특히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유사한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지내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고 대화와 상호작용이 중단되어 단절이 심화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다]**는 연대와 소속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이 도덕적 이견을 보일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공적 삶에서 상호 존중의 토대가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 중 범주화(categorization)에 대한 기술이다. 또한 사람들은 소속된 집단 구성원과의 유사성은 강조하는 반면, 소속되지 않은 집단과의 차별성을 과장하는 경향을 지니며, 이런 범주화는 편견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마]**는 제로 섬 게임과 같이 사회를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인식하는 경우,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손실과 연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발췌한 시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의 노인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보편성 정서(가족애, 고독감과 같은)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연결망과 관계성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의 가능성도 높아졌음을 제시한다.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갈등의 원인을 **[나], [라], [마]**, 해결 방법을 **[다], [바], [사]**에서 찾고, 이를 **[라]–[바], [나]–[사], [마]–[다]**로 대응시키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 [라]–[바]:개인 내/심리 등, [나]–[사]:개인 간/대인 관계/커뮤니케이션 등, [마]–[다]: 사회/정치/경제 등) 조직화된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채점기준

이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첫째,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각 제시문별 핵심어는 다음과 같다.

[나] : 교류가 없는 삶, 대화와 상호작용의 부재
[다] : 연대와 소속 의무, 공동체 의식, 정부의 적극적 개입
[라] : 범주화(categorization), 내집단(in–group) 구성원과의 유사성 강조, 외집단(out–group) 구성원과의 차별성 강조
[마] : 제로 섬 게임, 제한된 자원의 분배, 경쟁, 타인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인식
[바] : 동질성 인식을 통한 공감의 향상, 가족애와 같은 인간 보편적 정서의 공유
[사]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진정성 있는 소통

각 제시문의 핵심어의 대부분은 인문 계열 학생들이라면 '다문화 갈등'이라는 대주제 아래,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여러 교과를 통하여 많이 접했던 개념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갈등, 공감, 대화, 연대, 공동체 의식' 등의 용어들을 여러 교과에서 여러 번 학습했기에, 오히려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성찰해 볼 기회를 갖지 못 했을지도 모른다. 제시문의 핵심어들을 자세히 성찰해 본다면 갈등의 원인과 공감의 방법이 관심 (예: 개인 내 심리,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정치 · 사회 · 경제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제시문 **[바]**에서 다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과의 동질성 인식을 통해 공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시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공감이 중요하다는 식의 피상적 이해에 그친다면, 글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 둘째, 특정 사회 현상을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틀로 분석하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 후, 원인–해결 방법의 대응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의 분석의 틀을 통해 재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다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사회 현상을 더욱 가까이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 방안도 더욱 다채롭게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심화' 교육한다는 효과도 노린 것이다.

1.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구분하였는가?
   원인 : [나], [라], [마]
   해결 방법 : [다], [바], [사]

2. 각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대응시키고, 적합한 이유를 제시하였는가?
   대응 1 : [라]–[바]
   대응 2 : [나]–[사]
   대응 3 : [마]–[다]

3. 각 원인–해결 방법의 대응을 논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제시하였는가?
   대응 1 ([라]–[바]) : 개인 내/ 심리 등
   대응 2 ([나]–[사]) : 개인 간/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대응 3 ([마]–[다]) : 사회/ 정치/ 경제 등

원인과 해결 방법의 대응이 제시된 답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대응시킨 이유에 설득력이 있다면 타당하게 본다. 단, **[라]–[사]**, **[나]–[바]**를 대응시키면서 제시문 **[사]**와 **[바]**의 해결 방법을 공통적으로 소통, 교류, 공감 정도로만 논의한다면 이는 제시문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며, 감점 요소가 된다. 예컨대, 제시문 **[바]**의 시는 공감이나 소통만을 함축하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에 기저하는 보편적 정서나 동질성의 인식을 핵심으로 한다. 때문에 원인–해결 방법의 대응이 제시된 바와 다른 경우, 제시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으나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인지, 혹은 제시문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대략적으로 대응시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원인–해결 방법의 대응을 제시된 답과는 다른 기준으로 조직화한 경우, 원인–해결 방법의 대응을 병렬식으로 '나열'만 한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된다. 원인–해결 방법의 대응을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직화하였으나 제시된 답과는 다른 경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면 타당하게 본다.

4. 답안사례

[가]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공공재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와 같은 행동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공공재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지의 사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경합성으로 인해 한 사람이 공유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공유지 사용이 제한된다. 그에 따라 공유 자원을 남용하게 되는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나], **[라]**, **[바]**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보여 준다. 우물, 가로등, 목초지 관리 활동 혹은 서비스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한 명이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재의 공급 부족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다]**, **[마]**의 남극의 고래, 공공화장실의 화장지는 비배제적이면서도 경합적인 공유 자원이며, 해당 지문들은 공유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 비극의 문제를 보여 준다.

공유지 비극의 문제와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동할 때 공익은 감소할 수 있고 이 결과로 개개인의 후생은 더욱 나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익 추구가 항상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사]**의 주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익 추구의 한계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를 통해서는 구성원의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부족 문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 공유 자원의 고갈을 불러오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